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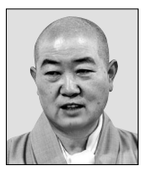
탄허기념박물관 특강

혜거 탄허기념박물관장 스님은 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관내 보광명전서 혜민 스님 초청 특강 '행복이야기'를 개최한다.



부산민족서로돕기 총회

무원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스님은 1월 31일 오후 7시 부산진구 본부 사무실서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불교지화 강습회

정명 불교지화장엄전승회장 스님은 1월 29~31일 김천 직지사서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인증 '불교지화 강습회'를 실시한다.



공불련 신년법회

김상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2월 3~4일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영천 은해사서 불기2562년 신년법회를 봉행한다.



선운사, 상구보리 하화중생 원력 다져

포살법회 · 지성대종사 20주기 추모재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1월 15일 동안거 포살법회와 태허당 지성대종사 20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열린 포살법회는 선운사 대중스님들과 선운사 불학승가대학 학인스님, 참당암 · 도솔암 · 석상암 등 산내암자와 말사스님 등 사부대중 110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포살법회는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 강주 재연 스님을 포살법사로 예경삼보에 이어 조계종단의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중심으로 〈불설범망경〉 보살십지품, 십중대계, 사십팔경구계를 독송하고 사부대중은 계율을 준수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을 다짐했다.

포살법회 후에는 선운사와 내장사 주지를 역임하는 등 선운사 중흥을 이끌었던 태허당 지성대종사 20주기 추모재가 봉행됐다.

추모재에서 태허 스님의 문도를 대표해 법경 스님은 "은사스님의 20주기를 맞아 늘 하심하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게 됐다"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선운사 대중이 더욱 수행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운사는 같은 날 템플스테이 세미나동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韓日문화, 바르게 알리고 싶어요"

Interview

한일문화 알리미 나카노 요코 자유기고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울 특파원 남편 따라 한국행
3년 서울 생활하며 매력 빠져
"종로 연등축제 매년 찾았죠"
한국인에게 바른 정보 주고파

"일본에서 보는 한국 발 뉴스는 대부분 안 좋은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도 많아요. 그런 뉴스를 접하면 한국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한국에 살 때도 일본 관련 뉴스가 그리 좋은 이야기가 있지는 않았죠. 두 나라에 대해 바르게 알리고 싶었어요."

본지에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 사찰 엿보기'를 연재한 나카노 요코(中野葉子 · 57 · 사진) 씨가 밝힌 연재의 이유다. 최근 한국불교 사찰과 문화 답사를 위해 한국을 찾은 그를 만나 연재 후일담을 들었다.

요코 씨의 한국어는 매우 유창하다. 의사소통은 물론 글쓰기에도 문제가 크게 없다. 그런 만큼 가장 궁금했던 것은 한국과의 인연이었다.

그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 것은 아사히신문 논설위원인 남편 나카노 아키라 기자를 따라 도쿄에서 머물면서부터다. 요코 씨는 도쿄서 한국어학당을 다니면서 한국어를 2년간 배웠고, 1년 동안을 한국 드라마인 '겨울연가' '가을동화' '대장금' 등을 보며 독학했다. 대학 시절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전공해 언어 습득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났던 점도 한몫했다.

2011년 남편이 서울 특파원으로 발령이 나면서 3년간의 서울살이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 그때부터 한국 사찰을 찾기 시작했다. 집에서 가까웠던 조계사는 필수 나들이 코스였다. 한국불교 사찰은 일본과 달랐다. 매우 개방적이고, 역동적이었다.

"일본 사찰에는 비불(秘佛) 개념이 있어서 불상들을 잘 볼 수 없어요. 한국은 다르더군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어요. 3년 동안 종로에서 열리는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도 매년 참여했어요. 정말 재미있는 기억이었습니다."

반대로 아쉬운 점으로는 일본인이 한국불교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너무 한정적인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한국인 역시 일본불교와 사찰을 알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제가 연재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일반관광 사찰이 아니라 정말 일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사찰을 한국인에게 소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반도 도래인(渡來人)들의 문화가 남아 있는 사찰을 알리고 싶었죠."

마지막으로 요코 상에게 한국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일본 사찰과 일본인에게 추천하는 한국 사찰을 질문했다. 곧바로 답이 왔다. 꽃과 관음신앙으로 유명한 나라의 하세데라(長谷寺)와 영주 부석사였다.

"하세데라는 일본 관음신앙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꽃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영주 부석사도 정말 아름다운 사찰이죠. 무량수전도 아름답지만, 사찰과 주위 풍광이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서로 좋은 점만 볼 수 있다면 갈등이 좀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월서 스님, 캄보디아서 불교 우의 다져

승왕청 초청에 방문, 왕립학교에 컴퓨터 기증

조계종 명예원로의원이자 법주사 조실인 월서 스님이 캄보디아와 양국 불교계의 우의를 다졌다.

월서 스님은 1월 10일 캄보디아 왕립 쁘레아시하누크라자 불교대학교서 500여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컴퓨터를 기증했다. 월서 스님의 컴퓨터 기증은 2013년 이후 3번째로 캄보디아 불교대학교의 교육선진화를 위해 진행돼왔다. 스님은 또한 대학 요청에 따라 교직원들의 연수활동을 후원하기도 했다.

이날 불교대학 부총장 욘 셍예 스님은 "월서 스님의 컴퓨터 후원에 불교대학교가 크게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기증 덕분에 지방 분교인 바땀방과 깜퐁츠낭, 깜퐁짬의 대학교도 혜택을 입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월서 스님(오른쪽)이 캄보디아 승왕 텝봉 스님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고 있다.

이에 월서 스님은 1961년 캄보디아 프놈펜서 열린 제6차 세계불교대회에 참석한 은사 금오 스님을 회고하며 "불교대학교 발전과 함께 재학생들이 연구에 매진해 캄보디아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같은 날 월서 스님은 캄보디아 승왕청 초청으로 승왕청을 방문, 승왕 텝봉 스님을 예방했다. 두 스님은 1993년 일본서 처음 만난 이후 세계불교도대회를 통해 수차례 만난 바 있다.

텝봉 스님은 월서 스님의 지속적인 캄보디아 후원에 감사를 표한 뒤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월서 스님은 크메르루주 만행에 의해 초토화된 캄보디아 불교를 복구시킨 텝봉 스님의 법력을 높이 평가했다.

김주일 기자

진안 쌍봉사 신년맞이 떡국나눔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가 무술년 새해를 맞아 지역 어르신 200명을 초청해 새해맞이 떡국나눔행사를 개최했다. 1월 12일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 2층 강당에서 열린 행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의 뜻을 전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새해를 맞아 어르신들이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효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연화조계종 신년하례법회



(사)대한불교연화조계종은 1월 12일 총본산 영천 정림사 경내 대웅전에서 무술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종정 보명 스님과 총무원장 혜법 스님, 종회의장 법진 스님, 문화부장 정호 스님 등 20여 명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혜법 스님은 "소통으로 단합해 종단 중흥의 초석을 놓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원불교조계종 신년하례법회



(사)대원불교조계종은 1월 12일 총본산 양산 불광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종정 청봉 스님, 총무원장 혜오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각 원장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종정 청봉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인류에 큰 영향을 주었다"며 "본래면목을 바로보고 수행 정진하는 납자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남부지사장 청운 스님

제 98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1월 31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제16기 불교의식(범음·범패·작법) 학인모집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입회비(교재비 포함) 20만원을 제외한 **1년 과정 교육비 일체 "무료"**

■ **범패 의식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오후 3시 30분)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다루는 법.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작 법 무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 오후 5시)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 바라춤 - 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관욕게바라

■ **지도교수 :** ⇨ 종송. 도량석. 예불. 각단불공 및 목탁. 요령. 태징. 북 치는 법 [동허스님]
⇨ 작 법 : 나비무. 바라무 기초과정 [지공스님]
⇨ 천도재의식 전과정. 작법무 전문과정 [보유자 일초스님]

● 개강일시 : 2018년 3월 6일(화요일) 오후 2시 30분
● 모집인원 : 00명 (선착순) ● 강의요일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 접수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정파 교육원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층 202호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349-6)
전화 : 032)529-6708 / FAX : 032) 529-6709 /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나비춤)보존회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 국 불 교 예 술 대 학**